

# ‘한옥마을에 깃든 오얏꽃 사람들’

시, 31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전주 이씨 문중 재조명 소장자료 등 전시

전주시가 조선왕조 태동 시기 전주 이씨 가문의 역사가 담긴 전시회를 연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오얏꽃 사람들, 전주 한옥마을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전주한옥마을의 태동과 전주 이씨 문중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자만마을에 터전을 삼아 거주했던 옛 전주 이씨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조선왕조가 태동한 왕실의 분향인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전시내용은 △오얏꽃 사람들, 자만마을에 터를 잡다 △전주 한옥마을 속 전주 이씨 사람들 이야기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전주 이씨 사람들 이야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성된다. 대표적으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준기)이 소장중인 족보와 제기, 제례 사진 등 자료와 김진돈 전라극석문연구회장이 소장중인 창암 이삼만 선생과 효산 이광렬 선생의 서예 작품 등 50여 점의 전시된다. 또한 △자만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전주 이씨의 계보 △한옥마을에 거주했던 황녀 이문용 여사의 이야기 △경기전·조경묘 등에서 진행되는 대제 등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목대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이화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답게

여행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심과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역사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 최씨’, ‘수일 백씨’, ‘전의 이씨’ 등 문중 관계자들과 협의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 전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전시가 전주한옥마을이 품어 온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정기휴관한다. 기타 전시 관련 문의사항은 한옥마을역사관(063-286-51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군산예술의전당, 단계적 개방

11일부터 1단계로 전 시설물 개방 · 전시공간 대관업무 재개  
2단계는 22일부터 시립합창단 브런치 콘서트 시작으로  
다채로운 실내 · 분산형 공연 · 전시 추진 거리두기식 착석 유도

군산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단계적 개방을 준비 중이다. 1단계로 11일부터 예술의전당 전 시설물을 개방하고, 전시공간 대관업무를 재개한다. 도심속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실개천 분수 가동을 시작으로 6월에는 바다분수도 함께 운영해 가족단위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예술창작품의 전시기회를 아태계

기대된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가문의 대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단계는 오는 22일부터 시립합창단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내 · 분산형 공연 · 전시를 추진한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확보하고자 좌석을 20% 규모로 온라인 인터넷예매만으로 축소 오픈, 거리두기식 지그재그 착석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관람을 기다린 관객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좌석규모이나, 향후 코로나 19 안전이 보장될수록 좌석 오픈의 규모도 확대할 예정

이다. 향후 중요한 공연 · 전시로는 오는 6월 4일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6월 13일 기획공연 ‘년버빌 퍼포먼스 웅알스’, 6월 19일~20일 군산시립합창단 제72회 기획연주회, 7월 4일부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컬러트의 황금빛 비밀’ 기획전시 등이 준비되어 있다. 예술의전당 한유자 과장은 “안전한 공연환경을 확보하고자 시설물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공연관람을 희망하시는 시민들께서는 티켓 인터넷 사전 예매, 마스크 미착용 공연장 입장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발열 · 인후통 등 의심증상자 방문자제 등 코로나 19로부터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코로나19 여파 임시 휴원’ 태권도원 재개원

생활방역 차원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원했던 태권도원을 지난 9일 재개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3월 14일부터 임시 휴원에 들어갔던 태권도원을 9일 재개원하며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밝혔다. 먼저, 태권도원 입장 시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접촉식 온도계나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해 이를 기록한다. 또한,

주요 시설물 출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을 유도하고, T1공연장 · 순환버스 · 모노레일 등 실내 구역은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열리는 ‘T1공연장’은 423석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도록 배치한다. 또한, T1공연장 입구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고 매회 공연 직후에는 내부 분수 소독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태권도원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8일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2020년 지역 HR(human resources)담당자협의회를 개최했다

## “전북 지역경제 살리기 해답은 ‘일자리 창출’”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역HR 담당자협의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8일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년 지역HR(human resources)담당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고용센터,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전북지역인적개발위원회,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18개 기관 및 대표기업이 참석했다. 전북도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필요하지만, 기존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력단절 예방과 창출을 위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HR담당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잡코리아(유) 정세용 본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힘든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다”며, “숨어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좋은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협회 참여기관 모두 제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주)올릭스 국경희 부사장은 “도내 3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시장에 대한 규모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구인·구직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는 도내 인적자원개발 기관 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일한 노동시장 분석데이터 등을 실무진과 공유하고, 아울러 공동협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HR담당자협의회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가 주축이 되어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로,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각종 일자리사업 설명회, 도내 기업정보 및 수요조사 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HR담당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bwc.re.kr)나 취업지원팀 063)254-37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